

여수 을 첫 어파류 폐사 ▶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니체 113주기...미술관에서 만난다 ▶12

kwangju.co.kr

농업유산-화순 봇도량·다랑이 논 ▶13

제19545호 1판 2013년 8월 6일 화요일 (음력 6월 30일)

유례없는 '마른 장마'...희비 엇갈리는 농심

콩·고추 말라가고 벼·깨는 풍작 예감

비가 내리지 않은 유례없는 '마른 장마'에 풍부한 햇빛을 받은 벼와 깨는 잘 자라고, 물이 부족해 콩과 고추밭에는 비상이 걸리는데 전남 들녘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또 비 온 뒤 기승을 부리는 벼도열병과 고추탄저병 등은 마른 장마 덕에 크게 줄었지만 비가 오지 않아 벼벌구는 급증,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개체수를 기록하고 있다.

도열병·탄저병 줄고 벼멸구 개체수 늘어 마늘·감자 가격폭락

5일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장마 기간에 비가 아예 오지 않거나 소나기만 내려 일조량이 풍부해졌고, 벼의 생육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좋다"고 밝혔다.

현재 벼의 크기는 평균 65.4cm로 평년보다 4.4cm가 크고, 포기 당 줄기 수도 평균 21.8개로 평년에 비해 0.7개가 많다. 흔히 장마철에는 햇빛을 보지 못해 벼의 성장이 더딘데,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 훌쩍 자라버린 것이다.

실제,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장마기간(6월 18일~8월 2일)은 지난해(6월 18일~7월 17일)보다 16일이나 길었지만 비가 내린 날은 21일로 지난해(20일)와 비슷했다. 비의 양도 적고, 잠깐 내리다 그치는 소나기가 많았던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이 시기 비에 민감한 개발은 그야말로 깨소금이 쏟아지고 있다. 한 참 끓어 피는 장마 기간에 비가 자주 내리면 작황이 좋지 않았던 깨는 올해 비가 적어

풍작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콩밭과 고추밭에서는 부족한 물을 주려는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콩은 현재 생육이 왕성한 시기지만 비가 부족해 자칫 잎이 마를 수 있고, 고추도 물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장마기간에 때 아닌 물주기 작업을 해야 했다.

고흥군 풍양면 김근호(42)씨는 "마른 장마에 벼가 너무 웃자라 가을 태풍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며, 타들어가는 고추밭에 물 주려고 종일 밭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른 장마는 병해충 기상도도 바꿔놓았다. 장마 기간에 물을 통해 전염되는 벼도열병과 고추탄저병은 줄어들고, 고온에 해충만 들끓고 있다.

현재 벼도열병 전염률은 0.5%로 예년(3~4%)에 비해 크게 줄었고, 고추탄저병과 벼잎마름병 등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벼벌구 수는 벼 20포기 당 80마리로 지난해 20마리에 비해 크게 늘었고,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비가 자주 내리면 벼벌구의 알 등이 쓸려 개체수가 줄어들지만 마른 장마 탓에 생육과 번식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 벼벌구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오는 12일부터 벼벌구 집중 방제에 나선다. 벼벌구 수가 큰 피해를 낸 2005년과 비슷한 정도로 이동한 아래 2개월여간 공백 상태였다. <관련기사 3·4면>

민주시·도당 살림살이 걱정되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운영 자금줄' 직책당비 모금 어려워져

신규당원 확보도 우려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지으면서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등 일선 시·도당의 재정운영과 신규 당원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차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내는 '직책 당비'가 시·도당을 운영하는 중요한 '자금줄'인 상황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자칫 당비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일선 진성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당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선출직들이 내는 직책 당비의 존도가 크다.

민주당의 직책 당비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장은 30만원, 광역의원과 기초의회 의장은 10만원, 기초의원은 5만원씩으로 매달 걷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5명과 광역의원

17명, 기초의원 49명을 두고 있는 민주당 광주시당이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직책 당비는 매달 590만원 가량이다.

전남도당은 기초단체장 17명과 광역의원 44명, 기초의원 188명을 두고 있다. 직책 당비만 1550만원에 이른다.

이런 직책 당비가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걷는 당비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런 '알토란' 같은 직책 당비 모금이 어렵게 꽈 당 운영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수는 200여 명에 이른다.

더구나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기초단체장이 직책 당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대차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과거 신규 당원 모집에 혈안이 됐던 광천

희망자들도 공천제가 폐지되면 당원 모집에 나설 필요가 없게 돼 당비 모금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직책 당비는 당원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공천 유무에 관계없이 내는 것이어서 공천제가 폐지되더라도 직책 당비 모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직책 당비가 광천에 대한 '보은' 성격이 강하고 당이 선거에 기여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직책 당비 걷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방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입당이 쇄도했는데 공천제 폐지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대부분 출마 예정자들이 관망 중"이라며 "신규 당원들이 납부하는 당비로 살립이 불어나는 '지방선거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청와대 참모진 전격 교체...새 비서실장 김기춘

정무 박준우 민정 흥경식

미래 윤창번 고용 최원영



김기춘 실장, 박준우 정무, 홍경식 민정, 윤창번 미래, 최원영 고용

였던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는 박준우 전 EU(유럽연합)·벨기에 대사가 비정치인 출신으로 과격 탈락됐다.

민정수석에는 서울고검장을 지낸 홍경식 전 법무연수원장, 미래전략수석에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을 지낸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 고용복지수석에는 최원영 전 복지부차관이 각각 새로 기용됐다.

이번 인사는 박 대통령 취임 162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로써 2기 청와대 참모진이 출범했다.

이정현 흥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러한 청와대 인선을 공식 발표

한 후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5개월여 동안 새로운 국정철학에 맞게 정책기조와 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일을 해오셨던 대통령은 그동안 과중한 업무와 책임 속에서 혁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온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한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 청와대 인선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각각 여부에 대해서는 "장관 교체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부 개편은 이 수석의 설명처럼 박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을 다잡기 위한 심기일전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해바라기애에 묻힌 여름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맷별 더위가 계속된 5일 전북 고창 학원농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해바라기꽃 물결 속에서 여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2013 제2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

Gwangju & Jeollanam-do Youth Festival 2013

2013. 8. 31(토) 오전 10시

광주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

- 중·고교생 댄스·밴드·풀무 등 각종 경연
- 대학 선택을 위한 입시홍보관 / 진로적성 상담관 운영
- 4대악 척결 UCC공모전 및 다양한 부대행사
- 유학·화상영어 설명회
- 대학 인기동아리 밴드·댄스 공연
- 광주FC 선수단 팬사인회 및 경품이벤트

| 주 최 | 광주지방검찰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일보사

| 후 원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안전행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지방경찰청 · 전남지방경찰청



경연대회 모집안내

| 모집분야 | 밴드 경연, 댄스 경연, 풍물 경연
4대악 척결 UCC공모전
3:3 길거리농구대회

| 모집기간 | 2013년 8월 19일(월)까지
| 문 의 | 062. 220. 0555 / 010. 5020. 5008

교育부장관상 및
총 상금 1,000만원 상당 수여